“마음의 문 열려면 말하세요”

우승미 작가의 **봉축 동화**

지금 여기 너와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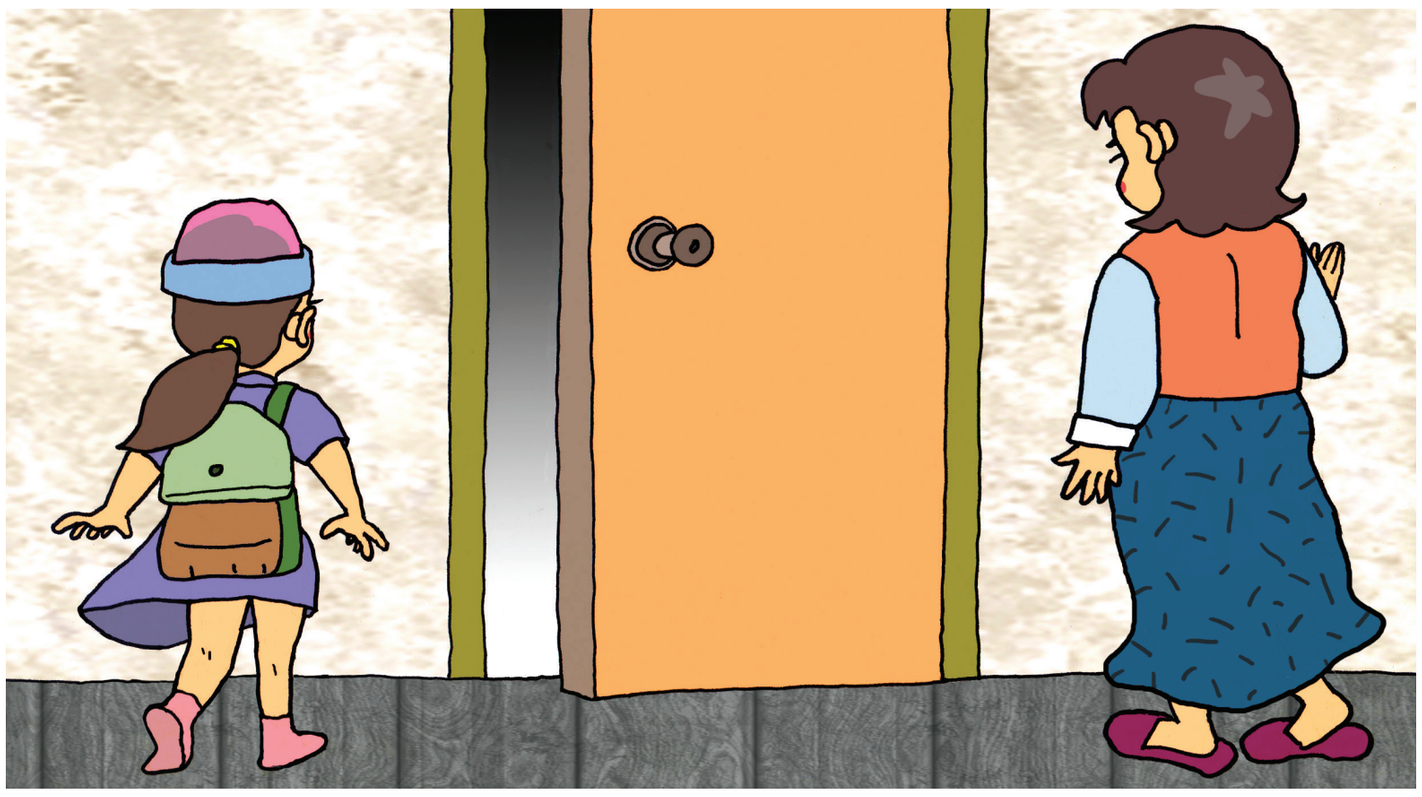


그림 · 강병호

다희는 엘리베이터 위치를 알리는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다. 14, 13, 12, 11, 숫자가 작아질수록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늘은 7층에서 문이 열리지 않을까? 오전 7시 50분. 학교에 가는 아이들이나 출근하는 분들이 층마다 탈 시간이었지만 웬일인지 오늘은 엘리베이터가 멈추지 않았다. 15층에서 7층으로 곧장 달려가는 직행 엘리베이터를 탄 기분이었다. 엘리베이터가 7층에서 멈추며 ‘땡’ 소리가 났다. ‘와! 멈췄다!’ 다희는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안녕?”

“에그머니나!”

문이 열리자마자 큰소리로 외쳐서 708호 할머니께서 깜짝 놀랐다.

“아, 안녕하세요? 놀라게 해서 죄송해요.”

“학교 가는 길이니? 친구인지 알았던 모양이구나.”

다희는 이내 시무룩해졌다. 707호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내려서 초인종을 눌러볼까 망설이다가 문 닫힘 버튼을 눌렀다. 소연이가 결석한 지 2주가 지났다. 소연이는 학교만 오지 않는 게 아니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메신저도 확인하지 않았다. 주말에는 이메일로 편지를 썼는데 역시 읽지 않았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3개월. 소연이가 전학 온 후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다. 소연이는 전화벨이 두 번쯤 울리면 바로 전화를 받았다. 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내면 곧장 확인하고 읽는 즉시 답글을 보냈다.

“어떻게 전화를 걸자마자 받아? 너 매일 휴대폰 끼고 사는 거 아냐?”

“응. 난 너한테 전화 오는 게 정말 좋아. 메시지 읽는 것도 좋고 보내는 것도 좋아. 언제 올지 몰라서 항상 휴대폰을 옆에 두고 있어. 통화할 때도 즐겁지만 전화를 기다리는 것도 즐거워.”

“엄마가 뭐라고 안 하셔? 우리 엄만 내가 맨날 휴대폰 본다고 난린데.”

“엄마도 신기한가 봐. 전에 나는 휴대폰을 거의 안 썼거든.”

소연이는 아침에 학교에 갈 때도 늦게 나오는 법이 없었다. 7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그 앞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주는 소연이의 모습이 보였다. 정말 꿈만 같았다. 아파트 같은 라인에 사는 절친이 생기다니. 함께 사는 친구, 아파트 맞은편에 사는 친구, 위 아래층에 사는 친구가 드라마에서는 잘도 나오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나에게 그런 친구가 생기다니.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서 같이 학교에 가고, 같은 학원에 다니고, 엘리베이터에서 헤어지는 친구. 그것만이 아니었다. 다희와 소연이는 마음이 잘 맞았다. 좋아하는 색깔도, 좋아하는 책도, 좋아하는 노래도, 좋아하는 아이돌 멤버도 똑같았다. 갖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같았다. 함께하면 늘 좋았다. 어떤 얘기를 해도 재미있었고, 무슨 일을 해도 신이 났다.

그런데 소연이가 2주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며 다희는 후-하고 깊은숨을 내쉬었다. 도대체 소연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어? 소연이 오늘도 안 오는 거야?”

교실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물었다.

“박재형도 지난주에 왔는데, 소연이는 왜 안 와? 혹시 다 나았는데 꾀병 부리는 거 아냐?”

“뭐야,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좀 서운해지려고 하네.”

“그런데 소연이 많이 아픈 거 아냐? 휴대폰도 꺼져 있던데.”

“다희야, 너 소연이네 집에 가봤어? 뭐래? 언제 온대?”

“어, 오늘 학원 끝나고 가보려고.”

“절친이라고 매일 붙어 다니더니, 다희 너 너무 무심한 거 아냐?”

누가 뭐라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아이들은 소연이가 수두 때문에 결석하는 거로 생각했다. 지난달 내내 수두가 퍼져서 학교 전체가 들썩들썩했다. 6학년 3반에도 일곱 명이나 수두에 걸려서 결석하는 바람에 한동안 교실이 휑했다. 가장 마지막에 수두에 걸렸던 박재형이 지난주 금요일에 덜 떨어진 딱지 몇 개를 얼굴에 붙이고 등교했으니 이번 주 월요일에는 소연이도 학교에 올 거라고 다들 생각했던 모양이었다.

‘내가 무심하다고? 그럴 리가!’ 다희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소연이가 처음 결석했던 날, 다희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소연이네 집 초인종을 눌렀다. 소연이 엄마가 나오셔서 소연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학교에 못 갈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혹시 수두에 걸렸나요?” 아주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많이 아파? 집에서 푹 쉬고 내일 만나자!’

아파트 현관을 나서며 메시지를 보낼 때만 해도 다희는 소연이의 결석이 이렇게까지 길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소연이는 학교에 오지 않았다. 수요일에 학원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현관문 앞에 소연이 엄마가 서 있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소연이 엄마는 학교생활에 대해 이것저것 물으셨다. 소연이가 누구와 친하게 지냈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혹시 친구와 다투거나 선생님께 혼나지는 않았는지, 짓궂은 남자애들이 놀린 적은 없었는지. 그때서야 소연이가 몸이 아파서 결석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

> 소연아, 언제쯤 이었을까?
> 네 마음에 상처가 생긴 건
> 어떤말도 상처될수 있었어
> 과거는 널다치게 할수 없어
> 지금 나는 너를 여전히 좋아해

“잠깐 소연이랑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소연이의 방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똑똑 나 다희야. 똑똑 소연아. 똑똑 잠깐 얘기 좀 해. 똑똑 네가 없으니까 나 너무 심심해. 똑똑 소연아, 보고 싶어. 똑똑.

학원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소연이 엄마와 마주쳤다. “담임선생님을 만나고 오는 길이야. 어쩌면 소연이는 학교에 다니지 못할 것 같아.”

소연이 엄마가 들고 있던 가방을 툭 떨어뜨렸다. 단지 안에 있는 벤치에 앉아서 소연이 엄마는 다희에게 소연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번 학교가 소연이에게는 세 번째 학교야. 첫 번째 학교에서 소연이는 반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어. 그냥 따돌리는 정도가 아니라 소연이를 불러서 욕하고 때리고. 그때 나는 회사 일이 바빠서 소연이에게 신경을 많이 못 썼어. 바보같이. 내가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소연이는 상처가 너무 깊어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가 되어 있었단다. 괴롭혔던 애들 몇은 다른 학교로 강제 전학을 갔지만, 소연이도 그 학교를 계속 다닐 수가 없었어.

전학 간 학교에서는 친구도 사귀고 잘 지내고 있었는데, 소연이가 친구랑 다툰 일이 있었나 봐. 다툰 아이가 친구들 단톡방에서 소연이에 대해서 나쁜 말을 했는데, 그 방에 소연이가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소연이가 있는 줄 알면서 일부러 그런 거였어. 사이버불링이라고 한다더구나. 요즘 아이들은 그런 식으로 친구를 괴롭힌다고. 아이들은 때론 생각 이상으로 잔인하지. 단톡방에서 나오면 또 초대하고 욕하고, 나오면 초대하고 욕하고.

아줌마는 소연이에게 다희 같은 친구가 있어서 정말 좋았어. 소연이가 그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은 정말 오랜만이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건지 소연이가 얘기를 안 해. 방문을 닫아걸고 나오질 않아. 아무래도 학교를 그만두고 중학교에 갈 때까지 홈스쿨링을 해야 할 것 같아.”

어렴풋이 다희도 알고 있었다. 전학 온 첫날, 아파트 1층 현관 앞에서 소연이가 돌아서서 물었다.

“왜 자꾸 날 따라와?”

“왜냐하면 여기가 우리 집이니까.”

다희는 어깨를 으쓱했다. 까칠한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소연이는 무서웠던 건지도 모르겠다. 다희가 엘리베이터에서 15층을 누르고, 7층에서 내리는 소연이에게 웃으며 손을 흔들자 그때서야 비로소 잔뜩 긴장했던 어깨를 툭 떨어뜨리는 모습이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 사이로 보였다. 아이들과 웃고 떠들고 장난치는 동안에도 소연이는 항상 긴장했다. 누군가 짓궂은 농담을 하거나, 무리한 부탁을 할 때도 언제나 웃으며 응, 그래, 괜찮아, 라고 말했다.

“뭐가 괜찮아? 싫은 건 싫다고 말해야지.” 언젠가 다희가 다그쳤을 때도 소연이는 웃기만 했다.

“난 다 괜찮아. 내 옆에 네가 있으니까.”

다희는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소연이는 정말 괜찮았던 게 아니라 괜찮지 않은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소연이의 방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다.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 언제였을까? 네 마음에 상처가 생긴 건. 솔비 생일파티 때였을까? 우리 둘 다 파티에 못 간다니까 솔비가 너한테 내 수행비서냐고 쏘아붙였잖아. 곧바로 사과하긴 했지만. 아니면 지난번 조별 과제 할 때였을까? 서로 기자 역할 하겠다고 해서 제비뽑기했는데, 네가 기자 뽑았잖아. 가영이가 자기 꿈이 기자라서 꼭 해보고 싶다기에 내가 양보해주는 거 어떠냐고 해서 서운했어?

소윤아, 듣고 있어? 생각해보면 어떤 말도 상처가 될 수 있었어.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있는 너의 마음이, 너의 기억이 상처를 내는 거야. 지금 너와 나는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여기에 함께 있지만, 너의 세계는, 네 마음의 세계는 아주 멀리 있는 것 같아. 내가 모르는 너의 기억 어딘가에.

하지만 소윤아, 과거에는 힘이 없어. 과거는 너를 욕하고 때릴 수 없어. 이미 지나간 일은 지금의 너를 다치게 할 수 없어. 너는 지금 여기에 있고, 지금 여기에 있는 나는 너를 여전히 좋아하고, 앞으로 다가올 시간을 너와 함께 보내고 싶어.”

딸깍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소연이는 보이지 않았다. 방안을 가득 메우고 있는 어둠만 한 뼘쯤 열린 문틈 사이로 새어 나왔다. 다희는 문을 열고 짙은 어둠 속으로 성큼 걸어 들어갔다.



우승미 작가는

2005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단편 ‘빛이 스며든 자리’가 당선되었고, 장편소설 〈날아라, 잡상인〉으로 제33회 ‘오늘의 작가상’을 받았다.

구국성사 용성진종대종사 대각사상으로
수행 · 조교하는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이 사 불심 도문
이 사 봉안 효경
이 사 서해 흥교
이 사 선효 성학
이 사 장산 도업
이 사 월천 혜총
이 사 서주 태원
이 사 금아 혜국
이 사 장산 성춘
이 사 무심 보광
이 사 벽암 지홍
감 사 월암 덕상
감 사 대해 일광
용성문도회 회장 경선
대각회분원 회장 지암

(재)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이사장 직무대행 흥 교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371 전화 02)765-2701 / 팩스 02)741-1385

불기2565(2021)년 부처님오신날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관음성지 나한도량

낙가산 보 문 사

사부대중일동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삼산남로 828번길 44 TEL.032)933-8271~3 www.bomunsa.me